

2공항 연계도시 불씨 살리고 아울렛 후순위로

어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최종보고회 타당성 논란 트랩 신도심~공항~원도심~제주항 18km 조성도, 수렴된 의견 반영 이달 중 도의회에 동의안 제출키로

제주도민 삶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각종 일정을 연기하고 수출대에 올랐던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 대한 최종 손질 작업이 마무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제주관광공사 웰컴홀에서 국토연구원 등에 의뢰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수립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연구진은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시했던 전략별 핵심사업 15개 중 3개 사업을 제외하고 5개 사업을 더해 총 17개 신규사업을 도출했다.

우선 제주도의회 업무보고와 도민 공청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일부 사업에 대한 단어 삭제, 일부 내용 조정이 이뤄졌다.

도민사회 반발이 제기됐던 '제2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은 '제2공항' 단어를 빼고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됐다. 다만 제2공항 추진 시 공항경제권·공항연계기능 추가 도입 등 사업 변경 가능성은 남겨뒀다.

제주도는 이 사업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또는 LH와 제주 동부지역에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조3000억원 상당을 투자해 동부지역 거점도시(혁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타당성 논란이 일었던 '정정 제주트램(Jeju-Tram) 구축'은 '정정 제주트램을 활용한 도심 리노베이션'으로 사업명을 변경했다. 제주도는 제주 신도심~제주공항~원도심~제주항을 잇는 약 18km 가량의 트램 노선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제주도 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인회 등의 반발을 샀던 쇼핑아울렛 사업은 도민사회 갈등 유발 소지가 있다고 판단, 핵심사업에

서 기타사업으로 조정됐다.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과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여전히 계획안에 포함됐다.

핵심사업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을 위한 미래 농업센터 설치',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2030 WFI) 사업',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기반 복지 전달 체계 구축', '제주 의료체계 선진화 사업', '제주글로벌교류허브공간' 등이다.

제주도는 2031년까지 15조7236억원(핵심사업 9조2317억원·전략사업 6조 4919억원)의 총사업비를 들여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청회 과정에서 도민사회에서 바라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며 "실현 가능하고 성취 가능한 사항을 위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최종 보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제3차 계획안에 반영해 이달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3일 제주관광공사 웰컴홀에서 열린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최종보고회에서 운영진이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올 하반기 어르신 일자리사업 확대, 기존 1만800개→1만1153개로 상향 조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 보전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당초 올해 393억원을 투입해 어르신 일자리 1만 800개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1차 추경을 통해 6억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353개 늘어난 1만 1153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반기 어르신 일자리 모집대상은 공익 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사업이다.

희망자는 16일부터 어르신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등)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소득 수준 및 세대 구성, 활동 역량, 경력 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되며, 최종 선발자는 접수기관을 통해 8월 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월 30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개시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전 8시로 조정했다.

또한 사업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안전교육, 냉방용품(쿨스카프, 쿨토시, 목선풍기 등) 지원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앞으로 어르신들의 특성을 반영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참여자 대상 안전교육 등 사업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4년부터 시작된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기초연금과 함께 노년기 소득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 역할도 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6월 기준 102개 사업단에 연인원 1만1200여명이 참여 중이다.

강다혜기자

소나기 또 소나기... '습한 폭염' 가속

내일까지 곳곳 국지성 소나기 습도 높아 체감온도 끌어올려

제주에 연일 소나기가 내리고 있지만 무더위 해소가 아닌 '찌는 듯한 더위'를 선사하고 있다.

3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5일까지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3일 오후 9시까지 5~20mm, 4일은 오후 6시까지 5~40mm다. 5일은 4일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연일 비소식이 예상됐지만 더위를 식히기보다 오히려 습도를 상승시켜 체감온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26~27℃, 낮 최고기온은 31~33℃로 예상됐으며, 5일도 4일과 같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이다.

제주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폭

염이 지속됐고, 해안지역 중에는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으로 나타나는 열대야가 발생하는 곳이 있겠다"며 "5일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를 33℃ 이상 끌어올려 현재 발효된 폭염특보 대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온다습한 남풍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5일까지 중산간 이상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날 제주의 열대야 발생 일수는 19.3일로, 열대야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많았다. 역대 7월 중 열대야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2013년과 2017년 각각 관측된 26일이다.

송은범기자

올해 8월 16일, 10월 4·11일 '휴일' '관광서 공휴일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 따라 올해 8월 16일과 10월 4일, 10월 11일이 휴일로 확정됐다.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올해는 다가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은 적용받게 된다. 이에 올해 대체휴일로 확정된 날은 8월 16일(광복절 다음날), 10월 4일(개천절 다음날), 10월 11일(한글날 다다음날)이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광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해 민간기업에도 이

번 대체공휴일 확대는 적용된다.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대체공휴일 지정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인 신정·석가탄신일·성탄절은 제외하고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표안' 등 일반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표안'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청와대·부미현기자

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 1803
 3월 17시 기준

**콘크리트 먼처리
콘크리트 폴리싱
세라믹 폴리싱
테라조 연마 광택**

에폭시/우레탄 도막제거

아직도 공장, 주차장, 사무실, 쇼핑센터, 물류창고 등 바닥에 에폭시나 타 제품으로 시공하고 계십니까?

선진국형 친환경 마감공법인 콘크리트 폴리싱 시공으로 한 번에 영구적 바닥 해결!

신화역사공원 YG

대형 상가매장

월정리 카페

냉동창고 콘크리트폴리싱

영상미디어센터

종달리 카페

동아통은 물류센터

세화카페

우도농협하나로

스트라이크볼링장

함덕 유드림 식자재마트

표창장

**강한 내구성, 친환경 시공, 쾌적한 표면, 작업환경의 개선
저렴하고 용이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한 안전 바닥재**

HTC SUPERFLOOR™
 콘크리트 바닥재의 새로운 혁명!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 723-3090

주식회사 제라콘
 010-5678-2586